

## 상주 죽암촌 서계 가문의 학문과 문풍

정 우 락\*

- I. 머리말: 강안학과 소학정신
- II. 죽암촌의 지리환경과 서계 가문
- III. 회통과 실용적 학문 경향
- IV. 죽암촌 문풍의 변화와 의미
- V. 맺는말: 강인함과 유연함 사이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상주 죽암촌의 서계 김담수 가문에 대한 학문과 문풍을 강안학적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다. 서계 가문은 낙동강 연안의 학문 특징인 『소학』을 바탕으로 한 실천윤리와 杜詩를 통한 현실주의적 시정신을 갖고 있었다. 김담수와 그의 아들들인 김정룡과 김정건, 그리고 7대손 김동필이 주요 연구 대상이며, 이들은 모두 낙암서원과 관련되어 있다.

죽암촌 서계 가문의 학문은 『소학』을 중심으로 하며, 강안학의 특징 중 회통성과 실용성이 두드러진다. 문풍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는데, 김담수와 김정룡은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두보의 침울하고 비개한 풍격을, 김정건은 소식의 웅혼하고 상쾌한 풍격을, 김동필은 도연명의 은일사상과 주자의 吟詠性情을 추구하는 등 다양한 문학적 특징을 보였다.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jwl0412@knu.ac.kr

상주 죽암촌의 서계 가문은 강인함과 유연함 사이의 조화를 추구했다. 『小學』을 기반으로 한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견지하면서도, 두시를 통해 우국의 정서를 표현하고 소식, 도감, 주자의 풍격을 수용하는 유연한 문풍을 보였다. 이러한 강인함과 유연함의 조화가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주제어

---

상주, 죽암촌, 김담수 가문, 낙암서원, 강안학, 회통성, 실용성, 『소학』, 전쟁 체험, 강인함, 유연함

## I. 머리말: 강안학과 소학정신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낙동강은 사림파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천의 정몽주, 선산의 길재와 김숙자, 밀양의 김종직, 김천의 조위, 성주의 김맹성, 달성의 김굉필, 청도의 김일손 등이 모두 낙동강 연안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고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학』과 『사서집주』, 그리고 『가례』를 실천윤리의 기반으로 삼았으며, 竹枝詞를 지어 지역의 인정과 풍속을 노래하였고, 杜甫 시를 애호하며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당대를 직시하였다. 김굉필이 소학동자로 일컬어졌고, 김맹성이 伽川竹枝詞를 지었으며, 김종직이 <洛東謠>를 지어 당대의 현실을 맹렬하게 비판한 것이 모두 그러한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김종직은 영남사림파의 종장 역할을 하였는데, 상주의 관루인 風詠樓의 중수기를 쓰기도 했다. 일부를 들어보자.

尙州가 洛水의 상류에 있어서 監司의 本營이 되었으니, 실로 동남방의 큰 도회이다. 사명을 받고 정사를 반포하는 손님과 조공을 바치는 일본 사신이 오고 가는 것이 줄처럼 연속하여, 竹嶺을 경유하는 것은 3분의 1도 못 되고 대개는 冠縣[문경]을 경유하는데 상주가 모여드는 중심지에 있으니, 체모[儀刑]에 맞게 마땅히 높은 다락과 웅장한 집이 있어 바라보는 것을 장엄하게 하며, 高明과 겨루어 더위와 습기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風詠樓를 중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sup>1)</sup>

김종직은 낙동강 700리설을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이 발언하고 있다. 즉 상주가 낙동강의 상류라는 지정학적 위치, 감사의 본영이 자리한 정치적 위상, 죽령과 조령으로 조정과 소통하는 정치적 요충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상산은 푸르고 푸른데, 낙수는 넓고 길게 흐르네. 예전의

1) 金宗直, 『佔畢齋集』 권2, <風詠樓重修記>, “尙, 處洛水之上游, 而爲監司之本營, 實東南一大都會也. 皇華賦政之賓, 日域獻琛之使, 往來繼屬, 由竹嶺者, 不能三之一, 而率由冠縣, 州當輻湊之交焉. 宜其有崇樓傑閣, 稱儀刑而壯觀瞻, 抗高明而祛炎溽也. 此風詠樓不可以不重修也.”

것을 계승한 이 있으니, 층층의 누각이 구름에 닿았네.”<sup>2)</sup>라고 하면서 상주의 위상과 낙동강의 아름다움, 거기에 맞는 풍영루의 위용을 적시하기도 했다. 김종직이 주목한 낙동강이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 역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俞好仁(1445-1494),<sup>3)</sup> 金駟孫(1464-1498),<sup>4)</sup> 權五福(1467-1498)<sup>5)</sup> 등이 관수루에 시를 남긴 것이 바로 그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영남 사림파가 성장하였다. 김종직 학단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듯이 이들은 현실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해 당대를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영남 사림파가 중시한 『소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훈구파의 집권 하에 성리학을 수용하고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바, 이 책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였다. 일상생활 속에서 물뿌리고 응대하는 예절,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윤리,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 등이 이 책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다. 즉 『소학』은 수신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남효온이 전한 김굉필과 관련한 다음 자료를 보자.

김굉필은 字가 大猷이다. 佔畢齋 김종직에게 수업하였고, 경자년(1480, 성종 11)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나와 나이가 같으나 생일이 나보다 늦으며 玄風에 살았다. 고상한 행실은 비할 데가 없어 평상시에도 반드시 의관을 갖추었고, 본부인 외에는 일찍이 여색을 가까이하지 않았다. 손에서 『소학』을 놓지 않았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고 답이 올면 일어났다. 사람들이 국가의 일을 물으면 반드시 말하기를 “소학동자가 어찌 큰 의리를 알겠는가.”라고 하였다. 일찍이 시를 지어, “학문에 종사해도 천기를 알지 못했지만, 소학 속에서 어제의 잘못을 깨닫노라[業文猶未識天機, 小學書中悟昨非].”라고 하였다. 점필재 선생이 “이는 곧 성인이 되는 근본 터전이니, 元나라 학자 魯齋 許衡 이후에 어찌 그러한 사람이 없다고 하겠는가.”라고 하였으니, 그를 추증함이 이와 같았다.<sup>6)</sup>

- 
- 2) 金宗直, 『佔畢齋集』 권2, <風詠樓重營記>, “商山蒼蒼兮, 洛水沄沄. 前者有繼兮, 層構軼雲.”
  - 3) 俞好仁, 『濯谿集』 권2, <觀水樓十絶>, 권5, <次洛江觀水樓韻>
  - 4) 金駟孫, 『濯纓集』 권5, <與睡軒登觀水樓>
  - 5) 權五福, 『睡軒集』 권1, <與季雲登洛東江觀水樓 季雲賦吳體一首 余亦步韻>
  - 6) 南孝溫, 『秋江集』 권7, 「師友名行錄」, “金宏弼字大猷, 受業於佔畢齋, 庚子年生員, 與余

낙동강 연안지역인 현풍에 살았던 김굉필은 평생 『소학』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스스로 소학동자로 일컬었다. 스승 김종직 역시 이 책은 성인이 되는 기반이라 하였으니, 사람 구실은 이 책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로 보아 강안학은 『소학』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던 바, 우리의 주제인 상주 죽암촌의 西溪 金鵬壽(1536-1603) 가문 역시 그 영향력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게 된다. 김담수는 “어려서 『소학』을 읽고부터 감동하고 분발하여 아랫사람에게도 겸손하고 공경하였으며, 벼를 가려 사귀고 오래 사귀어도 능히 공경하였다.”<sup>7)</sup>고 하고, 김정룡은 어렸을 때부터 『소학』을 지극히 좋아하여, <小學跋>을 지어 “나이가 지명에 가까워지자 비로소 다시 옛날에 배운 것을 복습하여 독실하게 믿고 깊이 기뻐하였다.”<sup>8)</sup>라고 하였다. 김동필 역시 “『소학』을 읽을 때 대의를 대략 통하고 나서는 번거롭게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부지런히 공부하였다.”<sup>9)</sup>라고 하였다. 이처럼 상주 죽암촌의 서계 가문은 『소학』을 실천윤리의 기반으로 삼았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강안학과 『소학』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주제를 다루기로 한다. 김담수가 강안 지역인 성주 운동에서 탄생을 하였고, 상주의 竹巖村에서 만년을 보내게 되니 낙동강 연안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하겠다. 이로써 강안학에 내포된 소학정신과 현실주의가 그에게 스며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의 학문과 문학에 나타나는 가족 사랑, 애민과 충군이라는 유가사상은 모두 여기에 기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상주 죽암촌의 서계 김담수 가문의 학문과 문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

同庚，而日月後於余，居玄風。獨行無比，平居必冠帶，室家之外，未嘗近邑，手不釋小學，人定然後就寢，鷄鳴則起。人問國家事，必曰，小學童子何知大義？嘗作詩曰，業文猶未識天機，小學書中悟昨非。佔畢齋先生批云，此乃作聖之根基，魯齋後豈無人？其推重如此。”

7) 曹挺融, <墓誌>([『西溪集』 권3), “幼時, 因讀小學, 有所感發, 謙恭下人, 擇友而交久, 而能敬.”

8) 金廷龍, 『月潭先生逸稿』 권2, <小學跋>, “年迫知命, 始復溫習舊學身之篤, 悅之深.”

9) 金秉武, <默巖公行狀>([『默巖文集』 권7), “公讀小學, 略通大義, 不煩教督, 自能助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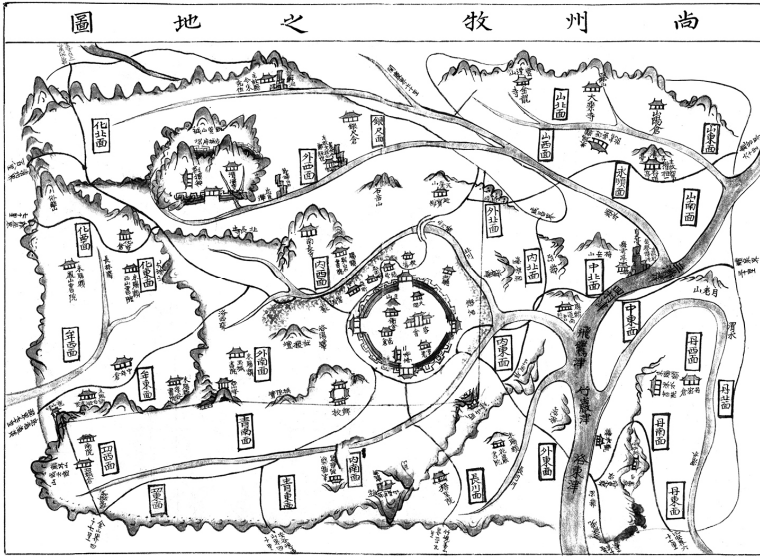
김담수는 상주 죽암촌으로 들어가 입향조가 되었다. 죽암촌은 현재 상주시에서 동쪽으로 13km 거리에 위치하며, 낙동강 건너편의 중동면 죽암리, 속칭 대바위 마을이다. 본고는 이 마을의 김담수를 비롯해서 4현을 주목한다. 김담수의 장남 月潭 金廷龍(1561-1619)과 5남 菊園 金廷堅(1576-1645), 김담수의 7대손 默巖 金東弼(1736-1807)이 바로 그들이다.<sup>10)</sup> 이들 가운데 김동필은 洛嵒書院을 창건하여, 김담수를 주향으로 김정룡과 김정견을 배향하였다. 본고에서는 낙암서원에 배향된 3인과 함께 현재 문집이 남아있는 김동필을 중심으로 서계 가문의 학문과 문풍을 탐구하기로 한다.

## II. 죽암촌의 지리환경과 서계 가문

『輿地圖書』 「尙州牧」 조에 ‘낙동강’이 설명되어 있다. 여기에 의하면, “주의 동쪽으로 36리의 거리에 있다. 안동의 동쪽 태백산에 있는 黃池에서 발원하여 소백산 이하의 물이 모여서 동쪽 경계에 이르고, 조령 좌우의 물을 합하여 三灘이 되고, 남쪽으로 흘러 回村津이 되고, 또 飛鸞津이 되고, 또 竹巖津이 되어 渭水에서 모인다. 남쪽으로 흘러 洛東津이 되어 善山界에 들어간다. 이로부터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비록 지역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지만 총칭 洛東이라 부른다. 또 伽倻津이라 하기도 한다.”<sup>11)</sup>라고 하였다. 『여지도서』 <尙州牧之地圖>는 상주의 읍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김담수 일문이 세거하였던 中東面과 竹巖津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한다. 다음 자료가 그것이다.

10) 서계 문중에서는 김정견의 차남 金以載(1613-?)를 추가해 5현이라 일컫는다. 김이재는 자가 仲厚로 1633년(인조 11) 增廣試 3등, 1648년(인조 26) 式年試 文科에 합격하여 형조좌랑, 춘추관 기사 등을 역임하였다.

11) 『輿地圖書』, 「慶尙道-尙州牧」, “洛東江, 在州東三十六里. 發源于安東太白山黃池, 會小白以下之水, 至州東界, 合烏嶺左右之水, 爲三灘, 南流爲回村津, 又爲飛鸞津, 又爲竹巖津, 合渭水, 南流爲洛東津, 入善山界. 自此至入海, 雖隨地異名, 而總稱洛東江, 又稱伽倻津.”



이 지도는 상주의 읍기와 중동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盤巖川과 伊川이 흘러 三灘津에서 낙동강과 만나고, 이 물줄기가 중북면의 自天臺[경천대]와 舞雩亭을 지나 回村津을 이룬다. 낙동강은 다시 흘러 내동면 소재의 사액서원인 道南書院을 지나 飛鸞津을 거치면서 상주의 읍지에서 흘러나온 남천과 북천의 합수가 다시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이어 長川을 흡수하며 竹巖津을 만들고 그 건너편이 중동면 죽암촌이다. 이어 관수루를 지나 洛東津으로 흘러가 의성 경계로 접어든다. 특히 죽암촌은 서쪽으로 갑장산, 남쪽으로 삼봉산, 동쪽으로 나각산, 북쪽으로 죽봉산에 둘러싸여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낙동강이 흘러간다. 이곳에서 선비들이 배를 띄우고 시회를 여는 船遊詩會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서계 가문은 어떤 연유로 죽암촌에 세거하게 된 것일까? 1598년(선조 26) 정유재란이 일어난 다음 해 봄에 김담수는 어머니 순천 박씨를 모시고 맏아들 金庭龍이 수령으로 있는 예안현으로 피란을 갔다. <宣城雜詠序>에, “무술년(1598) 3월 초순에 나는 왜구의 난리 때

문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아이들을 이끌고 선성에 와서 잠시 살았다. 선성은 만아들이 수령으로 있는 고을이다. 자식이 수령으로 있는데 아버지가 그 고을에 사는 것은 나라의 법이 아니므로 마침내 花山府 臨河縣 北村 鼎井里로 옮겨 살았다. 어머니 뱃기가 편리했기 때문이다.”<sup>12)</sup> 라는 기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담수의 어머니 순천 박씨는 피란해 있던 예안의 관아에서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장사를 치르기 위하여 어머니의 시신을 모시고 성주로 운구해 오다가, 성주지역이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상주 渭水 북쪽의 勝洞에 임시로 장사를 지냈다. 상례를 마치고 김담수는 상주 竹巖의 산수를 특별히 사랑하여 거기에서 송죽을 기르며 매화와 국화를 심고 살게 되었다.<sup>13)</sup> 이렇게 하여 김담수는 의성 김씨 상주 죽암촌의 입향조가 되었고, 2024년 현재 426년의 내력을 지닌다. 이 과정에서 그의 후손들 가운데는 여러 문인 선비들이 배출되었는데, 김동필은 그 대표적이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죽암촌을 중심으로 팔경<sup>14)</sup>을 읊기도 했다. 이 가운데 <甲丈晴峯>과 <竹巖津>은 이러하다.

甲峯削立白雲齊 갑장산 봉우리 구름 속에 우뚝하고  
千仞晴嵐近屋西 천 길 맑은 남기 집 서쪽 가까이 있네  
知有老龍潛不測 깊은 곳에 늙은 용 잠겨 있음을 알겠노니  
居恨瞻仰占興甍 농부들 쳐다보며 무지개로 날씨 점치네<sup>15)</sup>

東西俗客摠迷津 동서로 속객들 모두 길 몰라 헤매는데  
渡口誰須我友人 나무에서 나를 기다릴 내 벗은 누구인가

12) 金聃壽, <宣城雜詠序>, 『西溪集』 卷2, “歲在戊戌暮春之初, 余以寇亂, 奉老携幼來寓宣城. 宣城, 乃長兄作宰之邑也, 以子宰而父居其邑, 非國典也. 遂移寓于花山之府, 臨河縣之北村鼎井里, 便於觀親故也.”

13) 여기에 대해서는 정우락, 「서계 김담수의 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그 의미」, 『영남학』 62,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7, 51-52쪽 참조.

14) <幽居八詠>(『默巖文集』 권1)은 <甲丈晴峯>, <三峯奇狀>, <竹巖津>, <寶灘漁火>, <庭邊竹>, <軒前葵>, <無明巖>, <寒泉>이다.

15) 金東弼, 『默巖文集』 권1, <幽居八詠-甲丈晴峯>



時有風波生白地 때때로 풍파가 아무런 까닭없이 일어나니  
不如留待水能馴 물결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만 못하네<sup>16)</sup>

앞의 것은 갑장산의 맑은 봉우리를 읊은 것이고, 뒤의 것은 죽암촌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의 죽암진을 노래한 것이다. 죽암촌 서쪽으로 갑장산이 우뚝하고, 마을 앞으로는 낙동강이 흘러 진을 이룬다. 여기서 죽암촌 사람들은 산을 보면서 기개를, 나루를 보면서 험난한 세파를 넘는 방법을 생각했다. 뜰 가에 심은 대나무를 읊은 <정변죽>에서 보듯이 “텅 빈 속 끝은 마디를 누가 곱게 하랴”<sup>17)</sup>라고 하면서 절조를 다지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서 선조의 사당을 지키며 덕을 쌓으면서 살고자 했다. <선조의 사당을 중창할 때의 시[先廟重創時韻]>에서, “죽암의 거처에서 죽포시를 외우며, 선조의 사당 다시 터를 다졌네. 덕 쌓은 연원 바른 기맥을 보고, 어진 이 숭상하는 향기 사당 같이하자 했네.”<sup>18)</sup>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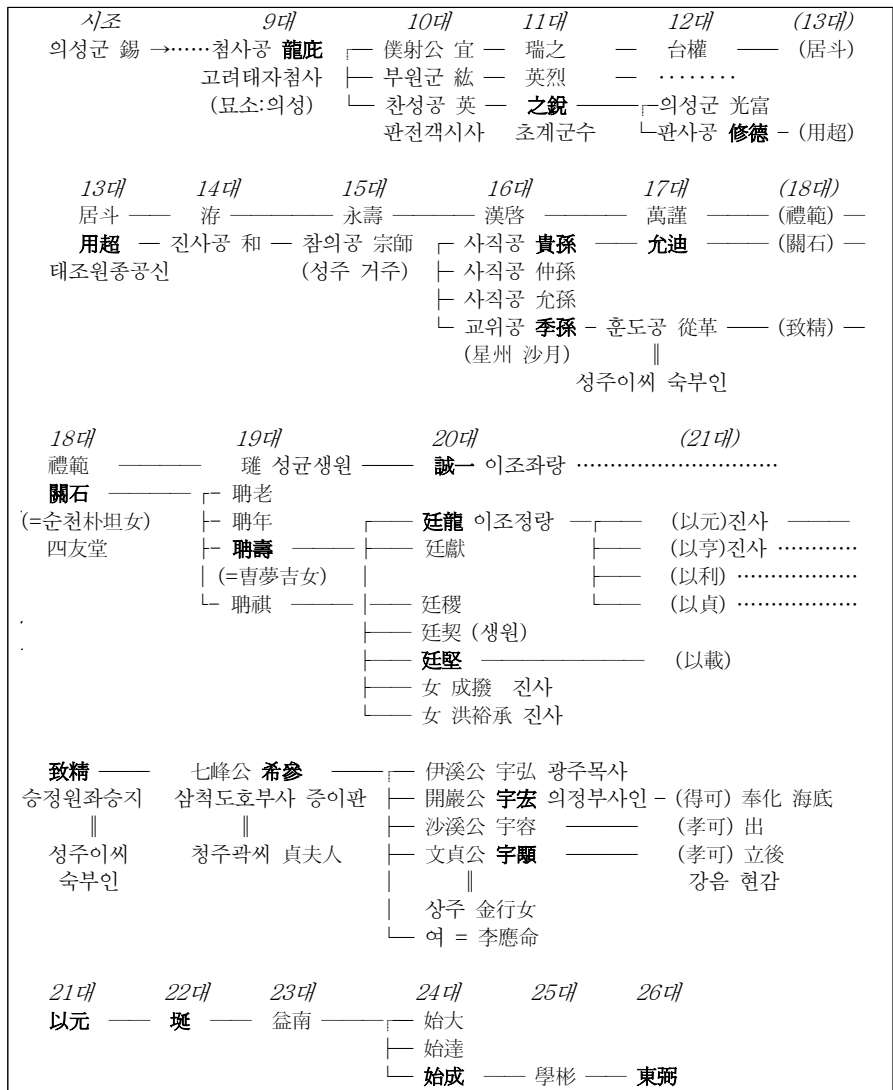
죽암촌 주위의 자연환경, 김담수가 죽암촌에 정착한 이유, 김동필을 중심으로 한 이 가문의 지향의식을 간략하게 살폈으니 서계 가문의 가계를 조사해보기로 하자. 시조는 의성군 金錫이며, 그로부터 9대를 내려와 金龍庇가 의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낙동강 연안지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의성 소재의 鎭民祠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곳은 의성군 김용비가 읍민들에게 큰 공덕을 끼쳤으므로 그가 죽자 사당을 설립하여 해마다 제사를 지냈던 곳이다. 의성 김씨들은 김석의 9대손 김용비를 시조로 삼기도 하지만,<sup>19)</sup> 죽암 문중에서는 김석을 상대 조상으로 보았다. 여기에 의거하여 죽암촌 서계 문중의 세계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20)</sup>

16) 金東弼, 『默巖文集』 권1, <幽居八詠-竹巖津>

17) 金東弼, 『默巖文集』 권1, <幽居八詠-庭邊竹>, “中通直節能誰屈.”

18) 金東弼, 『默巖文集』 권2, <先廟重創時韻>, “巖居嘗誦竹苞詩, 先祖明宮更築基. 積德淵源看正脈, 尙賢芬苾議同祠.”

19) 김성일이 그의 아버지 金璣의 「묘지」(『鶴峯集』 권7, <先考成均生員府君墓誌>),에 “先府君諱璣 …… 太子詹事諱龍庇公, 其始祖也.”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 이 표는 고희령, 『西溪 金聘壽의 尙州 정착과 삶』, 『영남학』 62,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7, 13-14쪽을 활용해 보충하였다.

의성 김씨의 시조 錫은 신라 경순왕의 아들로 義城君에 습봉되어 자손들이 그대로 관향을 삼았다. 고려조에 들어 龍庇는 金紫光祿大夫 太子詹事였다. 조선조에 들어와 用超는 태조를 보좌하여 原從功臣에 錄勳되어 충청도 忠淸道兵馬都節制使를 지냈으며, 시호는 文節, 호는 內省齋이다. 용초의 증손은 넷이 있었는데, 맏아들 貴孫은 副司直이다. 16대손 귀손의 손자 關石은 효행으로 齊陵參奉에 제수되었으며, 호는 四友堂이다. 관석 때에 비소로 성주의 倫洞에 집을 마련해 살게 된다.

관석은 아들 넷을 두었는데 셋째 아들 聃壽는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유일로 천거되어 繕工監參奉에 제수되었다. 답수는 네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는 廷龍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郡守를 거쳐 行 行吏曹正郎에 제수되었고 여러 군읍의 수령을 지냈다. 호는 月潭이다. 임진왜란 때에 禮安縣令이 되어 군량 운송의 책임을 맡았다. 둘째는 廷獻, 셋째는 廷稷, 넷째는 廷契, 다섯째는 廷堅이다. 이 가운데 정룡과 정견은 학문으로 명망이 높아 그의 아버지 답수와 함께 낙암서원에 배향되었다. 정룡의 아들은 以元이고, 이원의 손자 益南은 아들 셋을 두는 데 時大, 始達, 始成이 그들이며, 東弼은 시성의 손자이다. 동필은 낙암서원을 건립하여, 김답수와 김정룡, 그리고 김정견을 봉향하였다.

우리는 위의 세계에서 낙암서원에 배향된 세 인물을 주목한다. 모두 학문이 있고 문집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김답수는 『西溪先生逸稿』 3권 1책을 남겼고, 김정룡은 『月潭先生逸稿』 3권, 김정견은 『菊園先生逸稿』 2권을 남겼다. 김정룡과 김정견의 문집은 합쳐서 『月潭菊園兩先生聯芳逸稿』 6권 1책으로 묶었다. 그리고 김동필은 『默巖文集』 7권 1책을 남겼다. 이들 문집은 모두 국역으로 발간되어 세상에 전해진다.<sup>21)</sup> 서계 가문의 유적으로는 상주 죽암의 낙암서원을 비롯하여, 성주의 청천서원과 서계정, 상주의 경목재·유허비·장판각, 합천이 황계처사비 등이 있다.

21) 『국역 서계선생일고』(박미경 역), 한국국학진흥원, 2011 ; 『국역 월담국원양선생연방일고』(김홍영·박정민 역), 한울사, 2015 ; 『국역 묵암문집』 1·2(박미경 역), 한국국학진흥원, 2016. 본고에서의 번역은 이들 국역서를 참고하였다.

### Ⅲ. 회통과 실용적 학문 경향

낙동강 연안에 형성된 강안학은 그 특징을 회통성과 실용성, 그리고 독창성으로 든다.<sup>22)</sup> 회통성은 소통과 화합을, 독창성은 개성과 창조를, 실용성은 일상과 실천을 지향하는 강안학의 주요 성격들이다. 강안학은 다른 사물이나 사상과 배타적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성을 지니며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도 한다. 상주권 강안학의 경우 회통성, 독창성, 실용성이 고르게 나타난다. 이는 강의 연안에 위치하면서도 기호 지역과 가깝다는 지리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를 인식하면서 의성 김씨 죽암촌의 서계 가문에 이러한 공식을 대입해 보기로 한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뚜렷한 경향을 보이는 양명학의 유입 등은 나타나지 않아 독창성은 제외하기로 한다.

먼저 죽암촌 서계 가문의 학문적 회통성에 대해서다. 상주권 강안학의 경우 기호학과 영남학의 회통이 특별하다. 이황의 제자 가운데 중요한 문파를 형성하였던 柳成龍(1542-1607)계가 독자성을 띠며 기호학과 영남학을 회통시켜 갔다. 퇴계학을 바탕으로 두면서도 기호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대표적인 영남인은 유성룡의 제자 鄭經世(1563-1633)이다. 그는 예학과 인식론적 측면에서는 퇴계학을 계승하면서도 리기설에 있어서는 이황이 互發說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죽암촌의 서계 가문에서는 이러한 기호학과의 회통성에는 커다란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퇴계학과 남명학의 회통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아래 자료를 주목해 보자.

- ① 김담수: 서계 김공은 온후한 자질과 독실한 학문으로 일찍이 吳德溪, 黃錦溪를 종유하여 洙泗洛建[유학]의 종지를 배웠다. 이윽고 산해정에서 南冥을 뵈고 물러나서는 東岡, 寒岡과 함께 도의를 강론하고 연마하여 서로 보탬이 되었다. 만년에는 안동과 예안에서 노닐며 月川 趙穆, 雪月堂 金富倫, 惺齋 琴蘭秀 등

---

22) 정우락, 「강안학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낙안학[낙동강 연안학]을 중심으로」(정우락 외, 『강안학이란 무엇인가』, 역락, 2023) 참조.

여러 공들과 한가로이 시를 주고받았고, 퇴계 선생이 남긴 가르침을 거슬러 탐구하여 그 덕성을 도야하였다.<sup>23)</sup>

② 김정룡: 만아들 월담 선생은 감화를 입은 근본이 있었는데 겨우 15세가 되자 여러 경서를 널리 통하고, 마침내 한강·동강 두 선생의 문하에 올라 지결을 마음에 새겼다. …… 공무를 보는 여가에 퇴계 선생의 유집을 받들어 읽었고, 특히 <聖學十圖>에서 음미함이 있어 마음을 가라앉혀 연구·사색하고 자신에게 돌이켜 체득·경험하였다. 趙月川과 金雪月 등 여러 현인들과 도의를 강론하고 연마하여 힘쓰고 진보하여 마지않았다.<sup>24)</sup>

③ 김정건: 국원 선생은 자품이 몹시 돈독하고 중후하여 부형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일용의 계책이 법도를 공경히 따랐다. 소시에 한강 선생께 책 상자를 짊어지고 가서 학문을 하는 방도를 들었고, 만년에는 나의 선조 우복 선생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정미한 의리의 심오함을 더욱 궁구하였다.<sup>25)</sup>

④ 김동필: 자주 大山 이 선생과 立齋 정 선생께 가서 여쭙니 깨우침을 받는 바가 더욱 많았다. 또 宗契인 대사간 翰東, 진사 靜窩 趙錫喆, 樗翁 南漢朝, 舊堂 趙虎然, 참봉 李瑀, 鄭必復, 柳光漢, 족형 첨지 斗範 등과 교제가 더욱 돈독하였다.<sup>26)</sup>

이상의 자료에서 우리는 4인의 성학과정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23) 李象靖, <序>『西溪先生逸稿』 권1, “西溪金公, 先生以溫厚之資, 篤實之學, 蚤從吳德溪黃錦溪, 受洙泗洛建之旨. 既而, 謁南冥于山海, 退而與東岡寒岡, 講磨道義以相資, 益晚而游安禮之間, 與趙月川·金雪月·琴惺齋諸公, 優游唱和, 溯求陶山遺訣, 薰陶其德性.”

24) 鄭昌默, <序>『月潭菊園兩先生聯芳逸稿』 권1, “其胤月潭先生, 濡染有素, 而年纔志學, 博通諸經, 遂登兩岡先生之門, 佩服旨訣 …… 簿領脂暇, 奉閑退陶遺集, 尤有味於十圖, 沈心究索, 反己體驗, 與趙月川諸賢, 講磨道義勉進不已.”

25) 鄭昌默, <序>『月潭菊園兩先生聯芳逸稿』 권1, “菊園先生, 資挺篤厚, 承受義方之訓, 日用猷爲, 敬遵繩墨. 少而負笈於寒岡先生, 得聞爲學之方, 晚而親炙於吾先祖愚伏先生, 益究精義之奧.”

26) 金熙文, <跋文>『默巖文集』2, “時時, 往問大山李先生·立齋鄭先生, 薰炙所得益甚. 更與宗契大司諫漢東·趙進士靜窩錫喆·南樗翁漢朝·趙舊堂虎然·李參奉瑀·鄭必復·柳光漢·族兄僉知斗範, 諸賢契尤篤.”

가학으로부터 학문을 시작하는데, 김담수는 어린 시절李文樞(1494-1567)이 성주로 유배를 오자 여기에 나아가 배우다가 조식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오건과 황준량을 통해 퇴계학과 남명학을 접하게 되고, 이황과 조식에게 배움을 청한 정구 및 김우옹과도 교분이 두터웠다. 이후 피난하여 예안에 있으면서 이황의 제자들, 즉 조목, 김부륜, 금란수 등과 깊이 사귀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김담수가 정구와 김우옹이 그러하듯 조식과 이황을 스승으로 삼아 영남학을 아우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피난 이후에 퇴계 학인들과 교유하면서 퇴계학을 받아들이고, 조식이 들었던 함천의 황계폭포를 자주 찾기도 했다. 그가 黃溪處士라 불려진 이유이기도 하다.

김정룡은 정구와 김우옹에게 배웠고, 김정건은 정구와 정경세를 스승으로 모셨다. 정구와 김우옹이 퇴계학과 남명학을 회통하면서 心學을 중시하면서도 현실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실천하였듯이, 김정룡과 김정건 형제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김정룡이 도산의 天淵臺를 찾아 <도산서원 천연대에서 김 도사의 시에 차운을 하다[陶山天淵臺次金都事詩]><sup>27)</sup>라는 시를 짓기도 하고, 조식의 묘소를 찾아 <남명선생 묘소를 참배하고[拜南冥曹先生墓]><sup>28)</sup>라는 시를 짓기도 한다. 그의 이황과 조식에 대한 존모를 이로써 알게 한다. 그리고 확인이 쉽지 않지만 김동필은 이상정과 정종로에게 자주 질문하였다고 한다. 수학기에는 일정한 스승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상정이 세상을 떠나자 만사와 제문 등을 지어 애도하였다.<sup>29)</sup> 오히려 그에게 학문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집안 사람인 김

27) 金廷龍, 『月潭先生逸稿』 권1, <陶山天淵臺次金都事詩>

28) 金廷龍, 『月潭先生逸稿』 권1, <拜南冥曹先生墓>

29) 정우락, 『『목암문집』 해제』(박미경 옮김, 국역 『목암문집』 1, 한국국학진흥원, 2016) 참조. 『고산금문록』에는 김동필이 이상정의 제자로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김동필 자신은 <祭大山李先生>에서 “저는 용렬함이 비할 데가 없고 사는 곳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늦게나마 한 번 직접 뵙고서 다행히 오랫동안 흠모하던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진작 곁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어리석음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습니다.”라고 하여, 수학기에는 일정한 스승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만년인 1780년에 이상정을 찾아가 선조 김담수의 문집인 『西溪逸稿』의 서문과 행장을 받는다. ‘늦게나마 한 번 직접 뵙고’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말한 것으로

한동과 김두범, 상주 선비 조석철·남한조·조호연, 이광정의 아들 이우, 정탁의 후손 정필복, 류성룡의 후손 류광한 등이었다.

죽암 가문에 김담수를 중심으로 퇴계학과 남명학의 회통성이 뚜렷하고, 김정룡과 김정견 형제는 퇴남의 제자인 정구와 김우옹, 그리고 정경세의 학문을 수용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동필은 상주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학문을 구축하며 실천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편으로 침잠 독서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벗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하면서 학문적 성취를 이룩하였다. 물론 당대의 대표적인 선비였던 이상정이나 정종로의 학문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류성룡의 아들 柳紆(1582-1635)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지은 김정견의 제문을 주목한다.

훈령이시여! 맑고 순수한 자질과 겸손하고 너그러운 자태는 하늘로부터 얻은 것이니 詩禮는 지결로 전해 내려온 것이었네. 효제로 근본을 세우고 문로는 바르게 하여 학문에 마음을 다하고 글 짓는 것을 여사로 삼았네. 잠시 준마의 기량을 펼치긴 했으나 일생동안 안빈낙도를 행하여 이른 나이에 재능을 숨긴채 영달을 부러워하지 않았네. 지란은 절로 향기를 풍기듯 명예가 멀리 퍼졌네. 여러 번 남다른 지우를 입었지만 청렴과 결백으로 스스로를 지켰고 맑고 간결함으로 정치를 하자 백성들이 칭송하였네. 뒤늦게 사헌부에 발탁되었지만 홀로 풍기와 규범을 고수하였네. 재앙과 환난을 돌아보지 않고 마침 뜻을 펼쳐낼 것을 기억했네. 임금을 성군으로 만들고 백성에게 은택을 미치려 했었는데 하늘은 어찌 돕지 않는 것인가. 귀성에서 한 질병으로 죽음이 갑자기 닥치고 말았네. 나는 하늘에 원통함을 하소연하고자 했지만 온 나라가 시들어 꺾이게 되었네.<sup>30)</sup>

류진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하회를 거쳐 상주의 중동 우물리로 이거

보인다. 대산이 세상을 떠나자 그는 만사와 제문 등을 지어 애도한다.

- 30) 金廷堅, <祭文>『修巖集年譜』 권2), “惟靈, 清純之資, 謙厚之儀. 得之天賦, 詩禮傳訣. 孝悌立本, 有正門路. 專心問學, 餘事翰墨. 覽展驥步, 一生安貧. 早歲韜光, 榮達不慕. 芝蘭自芳, 名譽遠播. 累蒙殊遇, 廉潔自守. 清簡爲政, 民歌來暮. 晚擢霜臺, 獨持風裁. 禍患不顧, 方期展布. 致澤君民, 天何不佑. 龜城一疾, 雞夢遽催. 吾欲上訴, 邦其殄瘁.” 이 제문은 도남서원의 유생을 대표해서 지었다.

하게 되는데, 1617년(광해군 9)의 일이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호소사 鄭經世에 의하여 상주 의병장이 되었고, 실천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동지들과 함께 상주의 문풍을 이끌어간다. 그는 정경세, 이준, 노경임, 김효중, 김광계 등과 서간을 주고받으며 학문을 논하였다. 위의 제문은 김정견이 도남서원의 유생을 대표하여 쓴 것이지만, 류진 가문과 인근에 세거하면서 죽암의 서계 가문과 긴밀한 교류를 하면서 세의를 돈독히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sup>31)</sup> 일찍이 柳峻睦이 김담수의 생애사인 <선생실기>를 쓰고, 위에서 보듯이 김정견은 류진에 대한 제문을 썼다. 김동필의 경우 류성룡의 6대손이자 중동면 우물리 위수 가에 살았던 柳光漢(1731-1792)과는 특별히 친밀하게 지냈다.<sup>32)</sup> 이처럼 류진 가문과 죽암촌 서계 가문은 서로 소통하면서 학문의 깊이를 더해갔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죽암촌 서계 가문의 학문적 실용성에 대해서다. 리기심성론

31) 서계 가문은 수암 가문과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해 대대로 다양한 교류가 있었다. 김담수의 경우 柳成龍과 서울의 사마사에서 함께 합격을 했고, 그의 후손 柳峻睦은 김담수에 대한 <선생실기>를 썼으며, 柳光億과 柳厚祚는 조정에서 김담수의 후손들과 김담수를 추송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김정견이 경우 柳紆의 제문을 짓고, 柳尋春은 김정견의 묘갈명을 지었다. 특히 김동필의 경우는 류진 가문과 기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柳尋春에게 준 <贈答柳青陽濱字韻>, 柳光得에 대한 만사 <輓柳友光得>, 柳光濂에 대한 만사 <輓柳光濂>, 柳光億에 대한 만사 <輓柳持平光億>, 柳道源에 대한 시 <壬寅八月初吉 與花山柳上舍道源 善山宗人金崇默 登舟 自伴鷗亭 過鳳凰臺 宿洛店 越明 登觀水樓 唱和柳上舍韻><因步前韻 謹次柳上舍道源別章>, 류심춘에 대한 시 <追和愚谷柳翊贊尋春書齋韻><贈答柳青陽濱字韻>와 김동필의 죽음에 대한 만사, 柳必天에 대한 만사 <輓柳丈必天>, 류화경에 대한 만사 <輓柳和敬>, 柳象遠에게 준 시 <趙完之與其渭陽至親翊贊柳象遠善山新恩康敏秀 數宵泛月遊於鳳凰臺下 歸示唱酬之韻 因歎羨之餘 追次其韻以贈之>, 류성립에 대한 제문 <祭柳公聖霖> 등이 있다.

32) 김동필은 柳光漢과는 절친으로 그에게 준 <聊吟數絕 求和於柳巨天光漢><吟二絕 贈柳巨天><龍寺與巨天酬唱韻><與柳巨天金聖用 會約堂 滯雨酬唱 二首><贈柳巨天> 등의 시와 간찰 2통, 만사 <輓柳光漢二首>가 있다. 류광한은 자가 巨天인데 류성룡의 6세손으로 상주 중동면 우물리 渭水 가에 살았다. 류광한에게 시를 주면서 “이 형은 당시 波月의 집이 있었는데, 지나는 길에 잠시 만나보고 작별하니 그 서운한 마음을 돌아와서는 잊을 수 없었기에 절구 한 수를 읊었다.”라고 한 데서 이들의 정의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등 입으로만 천리를 논하는 데서는 그 학문이 실용성으로 발휘되지 않는다. 일찍이 조식이 이황에게 편지하여, “요즘 공부하는 자들을 보건대, 손으로 물뿌리고 비질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天理를 담론하여 헛된 이름이나 흠쳐서 남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남에게서 상처를 입게 되고, 그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니, 아마도 선생 같은 長老께서 꾸짖어 그만두게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sup>33)</sup>라고 한 바 있다. 조식의 이러한 생각은 쇄소응대라는 소학정신에 기반한 학문, 즉 실용주의가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상주 죽암촌의 서계 가문 역시 이러한 생각으로 학문을 했다.

① 김담수: 흉적들이 방자하고 악독하게도 陝川과 靈山, 그리고 居昌 세 곳에 출몰하고 있어 사람들이 뜻을 굳게 가지지 못하고, 짐을 지고 서서 하루에 서너 번씩 놀라고 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참으로 슬프다. 江左로 피란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친척과 분묘를 떠나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구나. 이 일은 결정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은 적이 점차 가까워져서 그 형세가 장차 하나도 남김없이 죽일 것 같기 때문에 가기로 하였다. 사람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은 하늘의 은혜이다.<sup>34)</sup>

② 김정룡: 정룡은 삼가 두터운 은혜를 입어 녹록한 몸을 구차하게 보전하고 있습니다만, 변방의 소식이 날로 다급해지고 나라의 형세가 점차 불안해지니 근심과 위태로움으로 생활하며 감히 스스로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멀리서 벼슬하느라 자식의 마음은 더욱 쓸쓸한데, 매번 공을 받들어 모시고 객지의 회포를 펴내고자 해도 그것 또한 쉽지 않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답답함을 곱절로 더하게 합니다.<sup>35)</sup>

33) 曹植, 『南冥集』 권4, <與退溪書>, “近見學者, 手不知洒掃之節, 而口談天理, 計欲盜名, 而用以欺人. 反爲人所中傷, 害及他人, 豈先生長老無有以呵止之故耶?”

34) 金聘壽, 『西溪集』 권2, <答子廷龍>, “但兇賊肆虐出沒, 陝靈居三之地, 人無固志, 荷擔而立以至一日三四驚, 人生斯世, 良可哀矣. 避亂江左, 曾是上計, 而離親戚棄墳墓, 實痛于懷, 茲未決焉. 今則賊路漸邇, 勢將靡遺, 用是決往矣. 人之不死到今, 莫非皇恩.”

35) 金廷龍, 『月潭先生逸稿』 권2, <答金雪月堂>, “龍, 伏荷厚賜, 苟保碌碌, 而邊聲日急, 國勢漸蹙, 虞危度日, 不敢自違, 離親遠宦, 孺懷益苦, 每擬奉陪巾杖, 以瀉羈懷, 而亦不容易, 令人增一倍鬱鬱.”

③ 김정전: 비록 임진왜란의 위대한 시기를 당하였으나 경전의 뜻을 궁구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죽암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서재를 지어 덕을 증진하고 학업을 닦는 여가에 또 후학에게 정성을 기울여 인도하고 장려하여 각기 방도를 다하게 하였다. 집안에 있을 때는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어 남들이 흠잡는 말이 없었고, 영화와 財利에 마음을 두지 않아 안으로 기뻐하였다.<sup>36)</sup>

④ 김동필: 무릇 이 규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선을 책한 뒤에 남에게 선을 권할 수 있고, 자신의 허물을 책한 뒤에 남의 허물을 깨우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아무개는 권할 만하고 아무개는 깨우칠 만하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복종할 자가 드물 것이니, 이른바 규약 속의 모든 조목들이 비록 빈 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한들 되겠는가? 더구나 이 규약은 위아래가 함께 맺은 계이니, 단지 범법하게 상례에 서로 도와주는 의리로만 여긴다면 평소 권면하고 바로잡아주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윗사람이 행해야 아랫사람이 본받는 도일 것이다.<sup>37)</sup>

죽암촌 서계 가문은 소학정신에 입각하여 실용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들의 소학정신에 대해서는 이미 간략히 살펴본 바다. 특히 김정룡은 어릴 때부터 『소학』을 특별히 좋아하여 이를 통해 의리를 깊이 깨닫고, 만년에는 한 질을 베끼고 여기에 발문을 쓰기도 했다. <小學跋>이 그것이다. 김정전은 남긴 글이 제대로 갈무리되지 않았지만 그의 생애 역시 『소학』에 바탕하였을 것이다. 이를 통해 스스로를 다스려 나갔고, 행실 또한 이 책을 바탕으로 제어하였다. 효우가 가정에 드러나고 신의가 남들에게 미더웠다는 평가는 바로 이 때문이었다. 더욱이 사회로 나아가 애민하고 충군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러한 소학정신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소학』은 서계 가문에 있어 大經大法을 전하는 대표적인 경

36) 金昌濂, <遺狀> (『菊園先生逸稿』 권2), “雖當龍蛇危難之祭, 未嘗不窮研經義, 卜居竹巖, 創構書齋, 進修之暇, 又眷眷於後學, 諷掖獎勵, 各盡其方, 居家孝友, 而人無間言, 絕意榮利, 而乃自怡然.”

37) 金東弼, 『默巖文集』 권4, <書竹洞鄉約冊末>, “凡我同約之人, 必須責己之善然後, 可勸人善, 責己之過然後, 可警人過. 而不然而曰: ‘某人可勸, 某人可警.’ 則鮮有能誠服者, 而所謂約中凡條, 雖欲不歸於空言得乎? 況是約也, 便作上下之同稷, 但泛看死喪顧助之義, 元不識平常勸規之方, 尤不可不思, 所以上行下效之道也.”

전이었던 셈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성을 다룬 자료가 바로 위에서 제시한 것들이다.

김담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의 대응과 그 극복이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험난한 전쟁 경험은 은거를 통해 유가적 진리를 추구하자는 隱求의 삶의 자세가 통째로 흔들리고 말았다. 임진왜란을 맞아 노모를 모시고 가야산으로 피신하였고, 정유년 재란이 발발하자 어머니를 모시고 예안 현감으로 있던 만아들 정룡에게로 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실용성에 입각한 국토와 인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각별하게 느끼게 된다. 위에서 제시한 자료①에서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정유재란 시 장자 정룡이 있는 예안지역으로 피신하기 직전 김담수가 그의 아들 정룡에게 보낸 답신의 일부이다. ‘짐을 지고 서서 하루에 서너 번씩 놀라고 있다’, ‘적이 점차 가까워져서 그 형세가 장차 하나도 남김없이 죽일 것 같다’고 한 표현에서, 우리는 그의 다급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sup>38)</sup>

김정룡의 생애 역시 아버지 김담수와 결을 같이 하고 있다. 그는 아버지 김담수와 창녕 조씨 조몽길의 따님인 어머니 사이에서 만아들로 태어난다. 해는 1561년이다. 아버지와는 25세 차이가 난다. 그는 아버지와 전쟁 경험을 고스란히 함께 한다. 이 때문에 현실인식이 아버지와 같을 수밖에 없었고 그 바탕은 실용주의였다. 1585년(선조 18)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 박사, 假注書를 거쳐 1596년(선조 29)에 예안현감이 되는데, 이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른 심정을 자료②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위험한 변방 소식과 다급해지는 나라의 형세, 공무로 고향을 멀리 떠나 살 수밖에 없는 답답한 심정 등이 잘 드러나 있다.

김정견은 김담수의 다섯째 아들로 막내다. 1576년(선조 9)에 태어나니 아버지와는 40세, 형 정룡과는 15세 차이가 난다. 그가 전쟁을 겪은 것은 청소년기였고, 이 과정에도 학문에 열중하였다고 한다. 사마시에

38) 정우락, 「西溪 金聘壽의 戰爭體驗과 그 文學的 對應」, 『영남학』 1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6, 참조.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으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향리에 묻혀 학문에 힘썼다. 그의 스승이 정구와 정경세였는데, 정구가 성주에서 醫局을 세우고, 정경세가 상주에 存愛院을 세워 지역의 의료를 담당케 했던 사실을 상기하면, 그의 실용주의의 근원도 이해할 수 있다. 정경세와 서간을 통해 예를 답문했던 것<sup>39)</sup>에서도 그의 실용주의는 분명히 읽힌다. 예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시 실용성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다.

김동필은 김담수의 7대손으로 竹洞鄉約을 실행한다. 학문의 실용성에 기반하였음은 물론이다. “상주가 유독 향약을 간직하고 있으니 바로 내가 살고 있는 한 지역을 두고 말하는 것”<sup>40)</sup>이라고 하면서, 자질구레한 규약보다 풍속과 교화를 두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한 몸소 앞장서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을 것이라 했다. 향약은 죽암촌의 鄉約堂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이 향약당을 증수한 것도 바로 김동필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향약당을 증수한 뒤 선배의 약조를 강하고 계시하면서 그로 인하여 읍다[鄉約堂重修後, 講揭先輩約條, 因吟]>라는 시를 지어 말세 풍속이 순후한 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제문을 지어 그를 향약과 관련시켜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다.<sup>41)</sup>

이상에서 우리는 상주 죽암촌 서계 가문의 학문 경향을 회통성과 실용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 가문은 소학정신을 바탕으로 퇴계학과 남명학을 함께 수용하면서 회통해갔던 것으로 보이고, 임진왜란 발발에 따른 대응과 전후의 복구, 그리고 안정기에는 향약의 수립과 그 실천을 통해 사회적 질서를 바로 잡아가고자 하였다. 학문의 실용성이 작동한

39) 鄭經世, 『愚伏集』 권12, <答金時直廷堅> 참조.

40) 金東弼, 『默巖文集』 권4, <書竹洞鄉約冊末>, “商山之獨存鄉約, 吾一方之謂也.”

41) 향약당의 유사인 족제 金東秘이 대표적이다. 그는 제문에서, “아! 죽암 마을에, 엄연한 향약당 있도다. 향약당에 약조가 있으니, 여씨의 유풍이라네 …… 집안에 큰 일 닥치면, 누구에게 자문하며, 향약당에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여쭙어보나.”(『목암집』 권7)라고 하였다. 8대손 金種一은, “다시 상주의 죽동에 있는 상산 향약당을 중건하였으니, 이 또한 부군이 선창하고 대의를 행한 것이다.”(발문, 『목암집』 권8)라고 하였다.

것이다. 죽암촌에는 강안학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인, 독창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즉 이 마을 선비들에게서 양명학 등의 경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서계 가문이 소학정신에 입각하여 퇴계학과 남명학을 받아들이면서 주자 성리학으로 그들의 세계관을 구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논의할 죽암촌의 문풍 역시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 IV. 죽암촌 문풍의 변화와 의미

상주의 죽암촌은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다. 죽암촌의 서계 가문에서는 『소학』을 즐겨 읽으며 강안학적 실용성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 詩聖이라 일컬어지는 杜甫(712-770)를 만나게 된다. 두보는 현실주의적 시세계를 구사하였던 바, 가족 사랑과 애민·충군 정신에 기반하여 당대의 정치·사회적 모순을 심도있게 비판하였다. <서울에서 봉선현에 이르러 감회를 읊은 오백 자[自京赴奉先縣, 詠懷五百字]> 등은 조정과 귀족의 사치를 풍자한 것이고, <麗人行>은 양귀비 자매의 호사와 음란을 비판한 것이다. 그리고 <石壕吏>에서는 당대의 시대적 모순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죽암촌 서계 가문의 문학은 이러한 두보의 문학적 경향을 제외하고 논할 수 없다.

훈구파와 대립하면서 사람과의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현실주의 맥락 속에서 학문활동을 하였다. 이에 따라 『소학』을 읽으면서 두보의 문학세계에 심취하였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소학』이 실천윤리의 기반이 되었다면 두시는 현실주의 문학창작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선산과 밀양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김종직, 그의 초기시를 담은 『悔堂稿』<sup>42)</sup>를 일별하면 이러한 경향을 바로 알 수 있다.<sup>43)</sup> 南孝溫

42) 이 책은 김종직의 초기시를 모아둔 것으로, 최근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에서 번역 출간하였다. 이상하 외, 『(역주) 회당고』, 점필재, 2023.

43) 김영봉, 「『悔堂稿』에 나타난 佔畢齋의 杜甫 시 수용 양상-杜甫 시의 用事와 點化

(1454-1492)이 『師友名行錄』에서 洪裕孫(1431-1529)과 姜訢(?-?)이 김종직에게 두시를 배웠다는 기록<sup>44)</sup>과 허균이 『惺所覆瓿藁』에서 김종직을 들어 杜少陵에 가깝다고 한 것<sup>45)</sup>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김종직과 그의 학단은 두시 공부에 열중이었다.

김종직의 『회당고』가 낙동강 연안 지역인 밀양을 중심으로 활동할 시절에 지은 작품을 모은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1430년(세종 12) 밀양에서 『集註杜工部草堂詩』<sup>46)</sup>가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관찰사 曹致가 주선하고 밀양부사 柳之禮가 주관해 간행했다고 한다. 51년 뒤인 1481년(성종 12) 점필재의 처남이자 문인인 曹偉(1454-1503)가 왕명을 받아 義砮 등과 『分類杜工部詩諺解』를 간행한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역 한시집으로 조선 문단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사림파의 성장과 낙동강 연안의 강안학, 김종직 학단의 두시 애호 등이 자연스럽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죽암촌 서계 가문의 경우 입향조 김담수의 시세계를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두시를 사랑했는지 바로 알 수 있다. 김담수는 저술을 즐기지 않았으므로 그의 문집은 소략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 고찰할 중심 대상

---

를 중심으로-, 『점필재 김종직 선생 <역주 회당고> 출간기념학술대회(2024.10.1 1.) 참조. 김영봉은 이 논문에서, “많은 비중으로 두보 시를 用事 또는 點化했다는 것은 점필재가 젊어서부터 杜詩에 심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점필재의 시는 치밀한 구성과 수준 높은 묘사로 최고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장점은 두보 시에서 보이는 특징이기도 하다. 수사적 기교를 통한 뛰어난 문예미와 자유자재로 意境을 창출하는 데는 두보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44) 南孝溫, 『秋江集』, 「師友名行錄」, “洪裕孫字餘慶, 號篠叢, 又號狂眞子. …… 辛丑年南陽守蔡申甫, 以餘慶爲能文, 放其役, 卽步歸嶺南, 謁佔畢齋受杜詩.” 『佔畢齋集』 「門人錄」에도 “姜訢字時可, 晉州人. …… 始從餘慶于密陽, 受杜詩於佔畢齋.”라 인용하였다.

45) 許筠, 『惺所覆瓿藁』 권2, <蛟山臆記詩-絕句>, “佔畢金公遍杜陵.”

46) 이 책은 중국의 南宋 시기의 학자 채몽필이 두보의 시에 대한 다양한 주석을 모아서 편집 간행한 것이다. 1430년(세종 12) 관찰사 曹致가 주선하고 밀양부사 柳之禮가 주관하여 간행하였으며, 발문은 尹祥이 썼다. 이 책의 일부가 양산 대성암에 소장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96호(2003.09.18.)로 지정되었다.

인 시문학의 경우, 『宣城雜詠』에 실려 있던 작품이 대부분인데 도합 94제 121수이다. 이것은 그가 ‘不喜著述’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sup>47)</sup> 그의 문학인식의 근저에 현실주의 시정신이 있었던 바, 이 때문에 그가 두보의 삶과 문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전범으로 하여 창작활동을 하였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전쟁체험이라는 두 사람의 시대 및 생애사적 환경이 비슷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음 작품을 보자.

夢覺幽隱曉 꿈에서 깨어나니 그윽한 창가의 새벽  
悲懷底處陳 슬픈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花山雖信美 안동이 비록 진실로 아름답지만  
南客自傷神 남쪽에서 온 객은 스스로 가슴만 아프다네  
月苦松楸露 달빛은 괴롭게 선산의 이슬에 내리고  
風淒戰伐塵 바람은 처량하게 전쟁터의 먼지를 날리네  
空將杜子淚 공연히 두자미처럼 눈물을 흘리나니  
揮灑倍今晨 오늘 새벽은 눈물을 배로 뿌린다네<sup>48)</sup>

이 작품은 김담수가 타향에서 忌日을 맞아 새벽에 일어나 고향의 先山을 생각하면서 지은 것이다. 수련에서는 기일날 새벽에 일어났을 때의 쓸쓸한 심정을 노래했다. 함련에서 제시한 花山은 안동을 의미하고, 南客은 그 스스로가 성주에서 피란을 왔기 때문에 그렇게 칭한 것이다. 경련에서는 松楸로 선산을 표현하였는데, 여기에 조상들의 묘소가 있으며 또한 고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동과 성주 사이에서 전쟁으로 인한 먼지가 처량하다고 했다. 여기까지 시상을 전개시킨 김담수는 미련에서 ‘두보의 눈물’을 제시하였다. 이 눈물은 바로 김담수 자신의 눈물이며, 제삿날을 맞아 이것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다.

47) 그러나 이것은 그의 문집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만 그러하다는 것이다. 현재 『서계집』에는 상주와 성주에서 지은 작품 14제 16수가 실려 있다. 이것은 안동으로 피란하기 전의 작품과 그 이후의 작품이 거의 소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8) 金聘壽, 『西溪集』 권1, <四月念四諱日曉起因念鄉井丘壠感而述懷>

김정룡의 문학은 아버지 김담수의 그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작품의 경향의 비슷하다. 아버지의 시에 차운하면서 부자간의 문학적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했다. <삼가 부친의 睡起 시에 차운하다[伏次家大人睡起韻]>, <다시 삼가 송단 시에 차운하다[又伏次松壇韻]>, <부친이 운자를 내어 화답하기를 명하시다[家大人拈韻命和]> 등의 작품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역시 작시를 즐기지 않았고, 지어놓은 것도 제대로 갈무리 되지 않았다. 현재 남아 있는 그의 한시는 41제 49수이다. 이를 일별하면 주로 임진왜란을 겪으며 가진 우국의식이 짙게 베어 있는 작품들이다. 다음 작품을 보자.

當年憂國不消憂    당년의 나라 걱정애 근심 사라지지 않고  
付與吾人憂未休    우리에게 남기신 근심 아직 끝나지 않았네  
憂國幾時憂可已    언제나 나라 걱정 그칠 수 있으리  
南陽阡下思悠悠    제갈량의 무덤 아래서 생각만 아득하네<sup>49)</sup>

김정룡은 김성일의 무덤을 지나며 제갈량을 떠올리고 있다. 일찍이 두보는 제갈량의 사당을 지나며, “승상의 사당을 어느 곳에서 찾을까? 금관성 밖에 잣나무가 늘어선 곳이다. …… 군사를 내어 승리하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죽으니, 길이 영웅들로 하여금 눈물로 소매를 적시게 한다.”<sup>50)</sup>라고 하면서, 전쟁 과정에서 사망한 김성일을 제갈량에 견주었다. 짧은 7언절구에 ‘憂’자를 다섯 번이나 반복한 것도 그의 나라를 위한 근심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두보와 그의 아버지 김담수 역시 이러하였던바, 沈鬱하고 悲慨한 두보시의 풍격으로 자신의 시풍을 대신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김정건 문학은 어떠한가. 김정건은 아버지 김담수 보다 40세, 형 김정룡보다 15세가 적다. 현전하는 그의 작품은 시 8제 8수, 제

49) 金廷龍, 『月潭先生逸稿』 권1, <過鶴峯先生墓有感>

50) 두보는 <蜀相>에서, “丞相祠堂何處尋, 錦官城外柏森森. 出師未捷身先死, 長使英雄淚滿襟.”이라 하였다.



문 2편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하여 鄭宗鎬(1875-1961)는 “70년 세월 동안 남긴 시문이 많지 않음을 한스러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번 화재를 겪어 흩어지고 없어져 모두 다 소진되었다.”<sup>51)</sup>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 대한 39인의 만사는 주위 선비들이 김정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가 하는 사실을 증언한다. 남은 작품이 적어 전모를 알 수 없지만, 이들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아버지나 형의 문풍과는 많이 바뀐 사실을 알 수 있다. 두보에 비해 蘇軾(1037-1101)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작품을 주목하자.

今夕是何夕 오늘 저녁이 어떤 저녁인가  
 壬戌初秋望 임술년 초가을 보름일세  
 清遊繼赤壁 맑은 놀이 적벽유를 계승하였으니  
 舊事眞無讓 옛 일에 진실로 못지를 앓네  
 一葉泛空明 한 조각 배를 달빛 부서지는 강에 띄우고  
 御風任所向 바람을 타고 가는대로 놓아두네

.....

醉裏夢坡翁 취중에 동파옹을 꿈에서 만나니  
 貌古氣豪宕 예스런 모습에 호탕한 기개일세  
 披以鶴氅衣 학창의 풀어 헤치고  
 扶以綠玉杖 녹옥장을 짚었구려  
 懸知千載下 분명히 알겠네, 천 년 뒤에도  
 神會來相訪 정신이 통해 서로가 만나는 것을

.....<sup>52)</sup>

위 작품은 김정견이 <적벽부>의 ‘望’자를 分韻으로 하여 지은 시의 일부이다. 『壬戌泛月錄』에 의하면, 1622년(광해군 14) 음력 7월 16일 낙동강에 배를 띄우고 선유시회를 열었는데, 23명이 참여하고 25인이 시

51) 鄭宗鎬, <序>, 『菊園先生逸稿』 권1, “七十年咳唾遺韻, 不恨其不多, 而屢經鬱攸, 散亡殆盡.”

52) 金廷堅, 『菊園先生逸稿』 권1, <壬戌之秋, 七月既望, 泛月東江, 會者, 凡二十五人, 以赤壁賦本文, 次第分韻, 得望字.>

를 지었다. 이준은 <洛江泛月詩序>에서 “천계 2년(1622) 7월 창석이 그의 벗 몇 사람과 피하여 말하기를 소동파의 적벽 놀이는 고급 사람들이 우러러 부러워하는 것이니, 단청이 있는 곳에 이르러 상상하는 것은 이 노인에게서 비롯하였다. 호탕한 賦詞와 걸출한 시구는 강신이 도와서, 무지개빛이나 신기루와 같은 광채가 사람들의 이목을 비춘다.”<sup>53)</sup>고 하면서 소동파의 시취를 드러냈다. 특히 취중에 동파를 꿈에서 만나보니 예스런 모습에 호탕한 기개라고 했다. 우리는 여기서 소식처럼 雄渾하고 爽快한 풍격으로 노래하는 김정견을 만날 수 있다.

김담수의 7대손 김동필은, 그의 선조들과 문풍을 또 달리했다. 그의 작품은 선조들에 비해 훨씬 많았는데, 이는 그 스스로 작품활동에 적극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시 418수가 이를 증언한다. 시 외에도 賦 2편, 書 14편, 序 3편, 記 2편, 跋 4편, 雜著 21편, 祭文 22편 行狀 7편, 墓碣 2편, 奉安文 1편을 지어 충분한 문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삶과 밀착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과거에 실패한 후 처사적 삶으로 일관하면서, 자연과의 친화적 태도를 지니고 독서를 통해 수신하였다. 또한 효우 정신에 바탕한 승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隱逸적 삶을 구현하며 자연 속에서 성리학적 성정을 읊고자 했다. 다음 자료를 보자.

李白과 杜甫는 만남 상황에 따라 그 회포를 써내었고, 韓愈와 柳宗元은 일에 부딪히면 그 정을 읊었다. 陳子昂의 <感遇>와 주자의 <齋居感興>은 모두 성정을 써내지 않음이 없었으니 시를 짓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비록 그러나 현달하여 시를 지은 자는 적고 곤궁하면서 시를 지은 자는 많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멀리 강호에 있거나 깊숙이 암혈에 있게 되면 강호와 암혈에서 지내는 마음을 알고 있어서 시로 읊지 않을 수 없으니, 이는 남에게 알려지기를 구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절로 본성에서 발하고 마음에서 우러나기 때문이다. 아, 나도 性情이 있으니 강호의 정인가? 암혈의 정인가? 옛사람의 시와 비교해 보면 숨씨가 가깝다고는 못하겠

53) 李垸, <洛江泛月詩序>([『壬戌泛月錄』]), “天啓二年七月, 蒼石子, 謀于其友若干人曰, 蘇老赤壁之遊, 爲古今所歆羨, 至有丹青而想像者, 是因此老豪詞傑句, 爲江神所助, 虹光蜃彩, 有足以照人耳目也.”

지만 또한 내 성정에서 나와서 금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래서 약간 회포를 읊었으니, 뒷날 보는 자가 혹시라도 이 글을 통하여 나의 성정을 보게 되지 않겠는가.<sup>54)</sup>

이 글에는 김동필의 시론이 적시되어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성정의 발현을 시로 보고, 시는 곤궁한 이후에 잘 짓게 된다는 ‘詩窮以後工’이라는 생각을 가졌다. “현달하여 시를 지은 자는 적고 곤궁하면서 시를 지은 자는 많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한 데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벼슬을 하지 못하고 ‘강호’나 ‘암혈’에 버려진 채로 있었으니 이를 그는 시작품으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그 예로 이백과 두보, 한유와 유종원을 들고, <감우>와 <재거감흥>이라는 진자양과 주자의 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 역시 ‘강호’와 ‘암혈’ 사이에서의 성정을 읊었는데, 그는 여기서 은일의 정서를 적극 펼쳤다. 그가 많은 영향을 받은 시인은 陶潛(365-427)과 朱子였다. 도잠에게서는 은일의 의취, 주자에게서는 성정의 음영을 본받았다. 다음 작품을 보자.

歸去來兮	돌아가리라
請與世而絕遊	세상과 교제를 끊으리라
宅處仁爲庶幾	인에 머물게 되기를 바라노니
矢不復乎他求	다시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으리라
任腔裏之至樂	마음의 지극한 즐거움에 맡기고
謝局外之冗憂	문 밖의 쓸데없는 근심을 사양하네
天門自我而相隔	벼슬살이는 나와 거리가 있으니
將永伴乎西嶠	영구히 서쪽 밭과 짝하려 하노라
木失支廈	큰 집을 지탱할 나무도 못되고
川不作舟	시내를 건널 배가 되지도 못하네
戒情轄於利場	이익 쫓는 길로 달려가는 것을 경계하고

54) 金東弼, 『默巖文集』 권4, <雜詠序>, “李杜隨遇而窮其懷, 韓柳觸事而賦其情, 感遇之於陳子, 感興之於考亭, 皆莫非寫出其性情, 則詩之作, 豈偶然哉! 雖然, 達而爲詩者小, 窮而爲詩者多, 其故何哉? 或遠而江湖, 幽而巖穴, 無有以識其江湖巖穴之情, 則於是乎, 不能無詠於詩, 非所以求知於人, 而乃自然, 發於性出於情者也. 噫! 余亦有性情, 其江湖之情乎? 其巖穴之情乎? 其於古人之詩, 非敢手腳之, 或近似而亦發吾之情, 而而不得禁焉. 故未免有略于賦懷處, 後之覽者, 或不以文, 而觀吾之性情否?”

縹警轡於椒丘	초구에서 고삐를 늦추도다
雲太虛而已過	구름은 허공에서 지나가고
水方塘而安流	물은 네모난 연못에 편히 흐르네
懼一戶之或頽	집이 혹시라도 무너질까 두려우니
感萬事之行休	만사가 끝이 있음을 생각하도다 <sup>55)</sup>

위의 작품은 도잠의 <귀거래사>를 차운한 <次陶翁歸去來辭>의 일부이다. 그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도연명 <귀거래사>의 정서를 이어받지만, 주자학적 의취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논어』의 ‘宅處仁’을 인용하거나, 주자 <관서유감>의 ‘方塘’ 등을 제시한 것이 모두 그것이다. 이밖에도 “입실에 단계 있음을 깨달았으니[悟入室之有階]”, “나는 아침에 기수에서 목욕하고[朝予沐兮沂水], 저녁에 봄옷을 털었노라[夕予拂兮春衣]”, “공자 맹자께서 위에 계시고[孔孟在上], 정자 주자께서 문에 서 계시도다[程朱立門]”, “저 광풍과 채월로[伊光風與霽月], 성대하게 마음을 단장하여[繽點粧其靈關]” 등 허다한 구가 그것이다. <도연명의 ‘책자’ 시>에 화운하여 손자를 훈계하다[和陶淵明責子韻 訓兒孫]와 같이 그의 시에는 수없이 도잠이 등장하고, 그 정서는 주자학적 성정이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죽암촌 서계 가문의 문풍과 그 변화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낙동강 연안에서는 사림파의 성장과 두보에 대한 관심이 결합되면서 일정한 문풍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두보시의 풍격은 이 지역 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김담수와 그의 아들 김정룡의 沈鬱하고 悲慨한 시세계에서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어린 시절 전쟁을 경험했던 김정견의 시대로 내려오면 소식의 雄渾하고 爽快한 시풍이 등장하고, 비교적 안정기를 살았던 김동필의 시대에는 처사적 은일정신과 음영성정의 논리에 따라 도잠과 주자의 시세계가 주된 관심사였다. 이러한 죽암촌의 문풍과 그 변화는 서계 가문의 유연성을 간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55) 金東弼, 『默巖文集』 권3, <次陶翁歸去來辭>

## V. 맺는말: 강인함과 유연함 사이

본 논문은 상주 죽암촌의 서계 김담수 가문을 중심으로 학문과 문풍을 살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강안학적 시각을 원용하였다. 낙동강 연안학을 의미하는 강안학은 사림과의 성장과 관련하여 『소학』을 바탕으로 한 실천윤리, 두시를 바탕으로 한 현실주의적 시정신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유학적 측면에서 회통성, 실용성, 독창성을 지닌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죽암촌의 선비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문집을 남긴 입향조 김담수를 비롯해서 그의 두 아들 김정룡과 김정건, 그리고 김담수의 7대손인 김동필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洛嶠書院과 관련되어 있다. 김동필은 이 서원을 세워서, 김담수를 주향으로 김정룡과 김정건을 배향하였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죽암촌의 지리환경과 세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輿地圖書』 <尙州牧之地圖>가 도움이 된다. 상주의 읍기와 중동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처에 다양한 나루가 있어 주요 소통로가 되는데, 三灘津·回村津·飛鸞津·竹巖津이 그것이다. 죽암촌은 상주에서 동쪽으로 13km 거리에 있으며, 낙동강 건너에 위치한다. 특히 죽암진은 선비들의 船遊詩會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을 지닌 죽암촌에 입향조 의성김씨 김담수 일문이 살았는데, 김정룡과 김정건, 그리고 김동필이 학문적 명망이 있었다.

죽암촌 서계 가문의 학문은 『소학』을 즐겨 읽으면서 강안학의 특징 가운데 회통성과 실용성이 주로 나타난다. 양명학의 수용 등 독창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회통성은 상주지역에 주로 나타나는 기호학과 영남학의 회통보다 퇴계학과 남명학의 회통이 주조를 이룬다. 실용성은 특히 소학정신에 바탕한 현실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해 있었다. 임진왜란 발발에 따른 대응과 전후의 복구, 이후에는 김동필이 죽동향약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하였다. 자질구레한 규약보다 풍속과 교화를 두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몸소 앞장서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로써 사회적 질서를 잡아가고자 했다.

죽암촌 서계 가문의 문풍은 시대가 내려오면서 사뭇 달랐다. 강안학의 중요한 부면 가운데 하나는 두보에 대한 영향이다. 김종직 학단에서 이는 매우 구체적으로 수용되었는데, 죽암촌의 경우 김담수와 김정룡의 시세계에 주로 나타났다. 이 부자는 전쟁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두보의 沈鬱悲慨한 풍격을 그대로 수용해 문학활동을 하였다. 청소년기의 임란을 맞았던 김정건은 두보보다 소식을 적극 수용해 雄渾爽快한 풍격의 작품의 남겼다. 여기에 비해 조선 후기에 주로 활동했던 김동필은 도연명의 은일사상과 주자의 음영성정으로서의 문학을 적극 추구하였다. 이는 그가 처사로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죽암촌은 갑장산, 삼봉산, 나각산, 죽봉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앞으로는 낙동강이 흐른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을 염두에 두면서 후손들은 상주의 서계 가문에서는 김담수 등이 죽암촌의 수려한 자연을 벗삼아, 대나무에서 지조와 절제, 바위에서 담대와 군자, 낙동강에서 변화와 온유, 산에서 기상을 이어받아 올곧은 선비의 길을 이어가며 죽암촌의 문화를 이룩하였다고 자부했다.<sup>56)</sup> 대나무와 산은 강인함으로, 낙동강은 유연함으로 읽힌다. 죽암촌 서계 가문은 이러한 강인함과 유연함 사이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터인데, 이는 자연이 인간과 일정한 정서적 소통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음 두 수를 보자.

江闊空懷濟世舟 넓은 강가에서 세상 건널 배 되리라 하였더니  
風淒野渡試閒遊 바람 처량한 들나루에 한가로이 노닐어 보네  
吞聲欲灑三韓恥 울음을 머금고 삼한의 치욕 씻고자 하나  
舉目其如萬國愁 눈을 들어보니 만국의 근심 어떠한가  
擊楫江波無感慨 노에 부딪힌 강 물결엔 감개가 없고  
繁天身世任沈浮 하늘 아래 신세는 부침에 맡기노라  
何年一洗干戈血 어느 해에 전쟁에 흘린 피 씻어내고  
橫槊酣歌靜海流 창을 든 채 취가를 부르며 바닷물결 잠재울까<sup>57)</sup>

56) 「죽암촌 400년 뿌리와 문화」(2017) 안내장 참조. 이 안내장은 죽암문중의 문장 김홍원 옹이 『묵암집』 국역출간기념 학술회의의 초청장을 대신해 제작한 것이다.

57) 金廷龍, 『月潭先生逸稿』 권1, <次封倭正使漢江題詠>

坐見洛流去不息 앉아서 쉼 없이 흐르는 낙동강 바라보니  
 從知一理本無極 이치란 본래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겠네  
 風徐夜水消塵滓 바람 잔잔한 밤 강물에 세속 먼지 사라지고  
 月滿前川宛影迹 달 밝은 앞 시내에 그림자 완연하네  
 逝者如斯源有深 흘러가는 물은 이렇듯 근원이 깊은데  
 盈科後進妙難測 구덩이 채워 나아가는 묘리 헤아리기 어렵네  
 淸宵喚起惺惺翁 맑은 밤에 성성옹을 불러 일으켜  
 朗詠秋齋玩歷歷 가을 서재에서 낭랑히 읊으며 날날이 음미하네<sup>58)</sup>

앞의 작품은 김정룡이 지은 것으로 서계 가문의 강인함을 알 수 있다. 문중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대나무나 산의 절조와 기상이 내적 작동을 한 것이지도 모른다. 김정룡은 성격이 지나치게 강인하였는데, 아버지 김담수는 아들이 이러한 점을 걱정하여 <큰 아들이 성격이 강직한데 병마절도사에게 욕을 당하였으니 매우 강개해 있을 듯하다. 그리하여 動心忍性으로 권면한다.><sup>59)</sup>라는 제목의 시를 지어 주기도 했다. 위의 시에서 김정전은 세상을 구제하고자 했던 포부, 전쟁으로 인한 나라의 치욕, 부침만 계속되는 신세, 태평성대를 위한 원대한 꿈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영웅의 탄식을 듣게 된다.

뒤의 작품은 김동필이 지은 것으로 서계 가문의 유연함을 알 수 있다. 역시 문중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낙동강의 변화와 온유의 심연이 이러한 意象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김동필은 쉼 없이 흐르는 낙동강의 물을 바라보면서 이치를 생각했다. 도잠의 은일정신과 주자의 음영성정을 함께 수용했던 그는 이 작품에서 강의 유연함을 통해 성리학적 이치를 노래하고자 했다. 흐르는 낙동강에서 감지한 무궁한 이치, 세진이 사라진 물속에 비치는 달, 넓은 강물을 통해 알 수 있는 깊은 근원, 맑은 밤의 또렷한 마음 등이 그것이다. 그에게서 낙동강은 유연성 위에 발견되는 진리 바로 그것이었다.

58) 金東弼, 『默巖文集』 권1, <淸夜江齋, 追和金一元履範, 極字韻>

59) 金聃壽, 『西溪先生逸稿』 권1, <長兒賦性耿介, 遭兵使之辱, 恐其慷慨太甚, 以動心忍性爲勉>

강인함과 유연함은 어느 곳에나 있지만, 이 둘 가운데 다른 하나를 배제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유연함을 잃은 강인함은 경화될 수밖에 없고, 강인함을 잃은 유연함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상주 죽암촌의 서계 가문은 이러한 강인함과 유연함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 이 가문에서는 『소학』을 기반으로 한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강력하게 지니고 있으면서도, 두시를 읽으며 우국의 정서를 드러내기도 하고, 소식·도잠·주자의 풍격을 취하는 유연한 문풍을 지니기도 했다. 상주 죽암촌 서계 가문의 이러한 강인함과 유연함은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던가? 이는 앞으로 깊이 있게 따져보아야 할 새로운 문제이다.

※ 이 논문은 2025년 02월 18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02월 24일부터 03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03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權五福, 『睡軒集』
- 김담수(박미경 역), 『국역 서계선생일고』, 한국국학진흥원, 2011.
- 金聘壽, 『西溪集』
- 김동필, 『국역 목암문집』 1·2(박미경 역), 한국국학진흥원, 2016.
- 金東弼, 『默巖文集』
- 金駟孫, 『濯纓集』
- 金廷堅, 『菊園先生逸稿』
- 金廷龍, 『月潭先生逸稿』
- 김정룡·김정건, 『국역 월담국원양선생연방일고』(김홍영·박정민 역), 한술사, 2015.
- 金宗直, 『佔畢齋集』
- 南孝溫, 『秋江集』
- 俞好仁, 『潘谿集』
- 이상하 외, 『(역주) 회당고』, 점필재, 2023.
- 鄭經世, 『愚伏集』
- 曹植, 『南冥集』
- 許筠, 『惺所覆瓿藁』
- 『輿地圖書』
- 『壬戌泛月錄』
- 
- 고혜령, 「西溪 金聘壽의 尙州 정착과 삶」, 『영남학』 62,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7, 7~41쪽.
- 김영봉, 「『悔堂稿』에 나타난 佔畢齋의 杜甫 시 수용 양상-杜甫 시의 用事와 點化를 중심으로-」, 『점필재 김종직 선생 <역주 회당고> 출간기념학술대회』, 2024, 33~48쪽.
- 김홍원, 「죽암촌 400년 뿌리와 문화」, 죽암문중, 2017.
- 정우락, 「강안학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낙안학[낙동강 연안학]을 중심으로」, 『강안학이란 무엇인가』, 역락, 2023.
- 정우락, 「西溪 金聘壽의 戰爭體驗과 그 文學的 對應」, 『영남학』 10, 경북대학교 영

남문화연구원, 2006, 373~412쪽.

정우락, 「서계 김담수의 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그 의미」, 『영남학』 62,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7, 43~79쪽.

정우락,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 『한국한문학』 53, 한국한문학회, 2014, 173~213쪽.

정우락, 「朝鮮中期 江岸地域의 文學活動과 그 性格 : 낙동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시론」, 『한국학논집』 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 203~257쪽.

정우락, 「『목암문집』 해제」, 『국역 『목암문집』』 1, 한국국학진흥원, 2016.

Abstract

## The scholarship and literary tradition of the Seo Gye family in Jukamchon village, Sangju

Jeong, Woo-lak

This study approaches the academic lineage and literary atmosphere of the Seogye Kim Dam-su family in Juk-am Village, Sangju, from the perspective of Riverbank Studies(江岸學). Seogye family possessed the practical ethics based on the "Elementary Learning"(小學) and a realistic poetic spirit through Du Fu's poetry, which are characteristic of the scholarship along the Nakdong River. Kim Damsu, his sons Kim Jeongryong and Kim Jeonggyon, and his seventh-generation descendant Kim Dongpil are the main subjects of research, all of whom are associated with Nagam Seowon(Confucian academy).

The scholarship of the Seo Gye family in Jugamchon centered around the "Elementary Learning"(小學).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Gangahn school of thought, convergence and practicality are particularly prominent. The literary style evolved over time, showing diverse literary features: Kim Damsu and Kim Jeongryong, based on their war experiences, pursued the melancholic and sorrowful style of Du Fu; Kim Jeonggyeon sought the grand and refreshing style of Su Shi; and Kim Dongpil pursued the reclusive ideology of Tao Yuanming and Zhu Xi's poetic expression of emotions and nature.

The Seogye family of Jukamchon in Sangju sought to balance strength and flexibility. While maintaining a realistic worldview based on the "Elementary Learning"(小學), they also demonstrated a flexible literary style that expressed patriotic sentiments through Du Fu's

poetry and incorporated the styles of Su Shi, Tao Qian, and Zhu Xi. How this harmony between strength and flexibility played a role in the local community remains a topic for further research.

**keywords :**

Sangju, Jukam Village, Kim Damsu family, Nagam Seowon, Riverbank Studies(江岸學), Convergence, Practicality, "Sohak(小學)" War experience, Strength, Flexibility.